

태권도 국제 교류의 장 펼쳐진다

무주 태권도원서 16~21일 ‘제19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병하)는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19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엑스포에는 세계 30여 개국에서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 등 4,000여 명이 참가해 태권도를 매개로 스포츠와 문화, 산업, 관광을 함께 즐기는 국제 교류의 장을 펼친다.

행사는 해외 참가자 등록을 시작으로 태권도 세미나, 국제 품새·겨루기 경기(A매치 포함), 태권도산업박람회, K-컬처 페스티벌, 해외 지도자 네트워크

콘, 문화탐방, 폐회식과 환송 만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18일 열리는 개회식이다. 국가대표 태권도시범단이 고난도 격파와 역동적인 시범 공연으로 개막을 알리고, 퓨전국악그룹 서도벤드가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축하 무대를 선보인다.

행사 기간에는 태권도산업박람회와 K-컬처 페스티벌도 열려 참가자들이 태권도 산업의 최신 흐름과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K-타이거즈의 K-팝 댄스 프로그램과 한여름 밤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마련된다.

19일에는 국제 겨루기대회와 버추얼 시범경기가 진행되며, 해외 지도자 간담회를 통해 세계 태권도 네트워크 확대와 국제 교류도 이어진다.

20일 문화탐방은 무주의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참가자들은 무주구천동 계곡 물놀이를 비롯해 와인동굴, 반다랜드, 태권어드벤처 등을 둘러보고, 전주한옥마을과 K-태권도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가 태권도의 본고장인 무주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손홍기 기자



진안군은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와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진안군-LH 전북지역본부 ‘맞손’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시행 협약 체결

진안군은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와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귀농·귀촌인과 농촌유학 가족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 유입을 통한 작은학교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춘성 군수와 송영환 LH 전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오선화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인미 오천초등학교 교장, 문병식 귀농·귀촌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사업은 진안읍에 일반형 매입임대주택 30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 대상은 귀농·귀촌 20세대와 오천초등학교 농촌유학 가족 10세대이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농촌 교육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진안군은 입주자 모집과 대상자 선정을 맡고, LH는 임대주택 매입과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사업비는 진안군이 20%, LH가 80%를 각각 부담하며, LH는 운영관리비 전액을 부담한다.

다만 최초 공급 이후 6개월 이상 장

기 공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임대료는 진안군이 지원한다.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임대 운영 기간은 20년이다.

진안군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주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백운면과 성수면에는 진안고원 행복주택을 조성해 운영 중이며, 마령면과 주천면에도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농촌유학 가족 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새로운 수요까지 보완하는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귀농·귀촌인과 농촌유학 가족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통폐합 위기에 놓인 작은학교에 새로운 희망을 더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LH와 긴밀히 협력해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공식화

무주군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핵심 실행 주체인 ‘액션그룹’을 공식화하며 주민 주도의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9일 (사)무주군신활력플러스사업단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3단계에 진입한 19개 액션그룹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무주군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 주민 주도의 자립형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각 액션그룹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공익 창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9일 (사)무주군신활력플러스사업단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3단계에 진입한 19개 액션그룹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액션그룹은 지난 2023년부터 발굴과 육성을 시작해 현재 19개 그룹이 사업 고도화 단계인 3단계에 진입했으며,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핵심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주=손홍기 기자

장수군, ‘계남 오아시스돌봄’ 본격 운영

장수군은 13일 계남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계남 오아시스돌봄’ 개소식을 갖고,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정상득 군의회 의장, 교육기관, 사회단체,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해 계남지역 돌봄체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오아시스”는 “오늘 아름다운 시간이 스며드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배우고 성장하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따뜻한 돌봄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26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시설이 부족한 계남면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계남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해 추진됐다.

특히 계남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타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계남면 거주 아동·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와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돌봄 활동 영상을 상영했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불



봄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훈식 군수는 “오아시스는 ‘오늘 아름다운 시간이 스며드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곳이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공간이 되고, 학부모에게는 안심과 믿음을 주는 따뜻한 돌봄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상생 소비 Week’ 운영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미사용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상생 소비 Week’를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상생 소비 Week’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다음 달 첫 번째 주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기본소득 사용기한 만료를 앞둔 군민들에게 사용기한을 사전에 안내하고 소비를 유도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소비 주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운영되며, 다음 소비 주간은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군은 소비 주간 동안 할인이나 덤 증정 등 자체 이벤트를 운영할 소상공인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1일까지이며, 첫 시행을 위한 집중 모집 이후에도 연중 상시 모집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성수면,농어촌기본 소득찾아기는방문신청운영

진안군 성수면(면장 이세민)은 주민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32개 마을을 순회하며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찾아가는 방문신청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방문신청은 주민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접수를 병행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세민 면장이 마을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신청 상황을 살피고 사업 용을 안내하는 한편,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12월까지 개인당 월 15만 원이 진안 패밀리카드로 지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